주관주의적 원리와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파국: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던이즘의 경우*

이 현 휘 (경희대)

【한글요약】

이른바 미국적 사회과학으로 출발한 국제정치학은 이미 붕괴되었다. 국제정치학은 17세기 서구 근대 세계관을 근본전제로 수용해서 성립했는데, 근대 세계관 그 자체가 20세기 초엽의 제2차 과학혁명을 통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자는 그동안 국제정치학의 이면에 깔린 근대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형이상학적 성찰'의 과제를 방기했다. 그러다보니 이미 100여 년 전에 붕괴된 낡은 국제정치학이 대학의 강의실과 교과서에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강매'되는 지적 지체(intellectual lag)가 지속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근대 세계관의 한 축으로 제시된 '주관주의적 원리'(the subjectivist principle)를 검토한 다음,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포스트모던 국제정치이론의 근본전제가 주관주의적 원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화이트헤드가 주관주의적 원리의 대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문을 읽고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경성대학교 권용립 교수님과 영남대학교 김영진 박사님께 각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논문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입각해서 국제정치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3부작(trilogy) 논문의 마지막 편에 해당한다. 이 논문과 함께 3부작을 이루는 나머지 두 편 논문은, 이현휘, "화이트헤드와 근대 세계관의 철학적 성찰," 『화이트헤드연구』, 제21집(2010), pp. 123-164. 이현휘,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의 허상과 실상", 『정치와 평론』, 제6집(2010), pp. 55-96.

안으로 제시한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the reformed subjectivist principle)를 참작할 때,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파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드먼드 버크가 제시한 '관습'(prejudice)을 적극 수용한 국제정치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주요어] 국제정치이론의 종언, 형이상학적 성찰, 주관주의적 원리, 구성주의, 포스트모던이즘.

학문을 임시방편 가설의 착종 상태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철학적 성찰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학문의 기초를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
-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국제정치를 새로운 이론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중지된 까닭은 무엇인가?"(The E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2013년『유럽국제정치학회지』(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특집 주제다. 2008년에서 2013년 동안 이 학회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학자들은 같은 기간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검토한 결과 하나의 뚜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검토한 논문은 대부분 기존 국제정치이론을 검증하는(theory testing) 내용을 다루었을 뿐, 국제정치이론을 새롭게 개발하려는(theory development) 노력을 보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등장한 것일까? 2차 대전 이후 이른바 '미국적 사회과학'으로 출발한 국제정치학은[1] 1차, 2차, 3차 대논쟁(great debates) 등을 거치면서 국

1) Stanley Hoffmann,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제정치학의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논쟁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2]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특집에 실린 여러 논문 중 데이빗 레이크의 논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레이크는 3차례의 대논쟁이 전개되는 동안 결정적으로 승리한 이론이 없었고, 또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쟁점이 근원적으로 해결된 적도 없었다고 평가했다.[3] 하지만 레이크의 지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학의 대논쟁을 통해 이론적 쟁점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를 통해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4] 그런데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면서 전개된 3차례의 대논쟁이 이론적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는 사실은 미국적 국제정치학이란 학문의 '쇠퇴'의 징후를 보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

Daedalus, 106:3 (1977), pp. 41-60. 국제정치학이 미국적 사회과학이라는 호프만의 진단은 후속 연구를 통해 꾸준히 검증되었다. Steve Smith,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ill an American Social Sci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3 (2000), pp. 374-402. Stephen M. Walt, "Is IR Still 'an American Social Science?'" Foreign Policy (June 6, 2011).

2) Tim Dunne, Lene Hansen, Colin Wight, "The E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2013), pp. 405-425.

3) David A. Lake, "Theory is Dead, Long Live Theory: The End of the Great Debates and the Rise of Eclectic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 (2013), pp. 568-571.

4) 예컨대 Emmanuel Navon, "The 'Third Debate' Revisite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4 (2001), pp. 611-625. Brian C. Schmidt, "On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A. Simmons,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s Angeles: Sage, 2013), pp. 13-21. Patrick Thaddeus Jackson and Daniel H. Nexon, "I Can Has IR Theory?" The Duck of Minerva Working Paper, 1. 2013 (8 January 2012), pp. 3-4.

이 화이트헤드는 쇠퇴기에 접어든 학문의 전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 바 있다. "때때로 지배적인 연구 방법이 이미 쇠잔했다는 징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어떤 방법론으로 진척시킨 연구가 학문의 주요 쟁점을 더 이상 다루지 못할 경우 그 방법론은 이미 낡아버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다. 학자들이 사소한 문제를 놓고서 끊임없는 논쟁을 벌인다면 그들이 연구하는 학문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5] 화이트헤드의 지적을 염두에 둘 때, 국제정치학은 미국적 사회과학으로 출범한 직후부터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진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3차례 대논쟁의 역정을 통해 국제정치학의 주요 쟁점이 해결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는 국제정치학에서 그처럼 불완전한 대논쟁조차 추동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이론 내지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최종적 파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최종적 파국'이란 평가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데이빗 레이크의 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이크는 어떤 '고질적인 인식론적 분열'(epistemology: the enduring divide)이 3차례의 대논쟁 전체를 관철했다고 지적했다. 즉,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간의 1차 대논쟁, 행태주의와 전통주의 간의 2차 대논쟁,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 간의 3차 대논쟁은 모두 법칙적 설명양식(nomological form of explanation)과 서술적 설명양식(narrative form of explanation) 간의 분열을 사이에 두고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6] 또한 2차 대논쟁은 1차 대논쟁에서 노정된 분열

5) Alfred N. Whitehead, The Function of Reason (Boston: beacon Press, 1958), p. 18.

6) David A. Lake, "Why 'isms' Are Evil: Theory, Epistemology, and Academic Sects as Impediments to Understanding and Progress," International Studies

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전개되었고, 3차 대논쟁 역시 2차 대논쟁에서 노정된 분열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전개되었다는 것, 따라서 3차례의 대논쟁은 엄밀한 의미에서 '장대한 싸움이 아니라 지극히 소소한 논쟁의 연속'(a series of small battles than an epic struggle)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논쟁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국제정치학은 잡다한 이론적 분파로 분열되어 각축하는 형국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7]

레이크가 주목한 법칙적 설명양식과 서술적 설명양식 간의 분열은 17세기 서구 근대 세계관에 내재된 어떤 분열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근대 세계관의 결정적 특징 중 하나는 객체(물질, 신체, 사실, 자연 등)와 주체(정신, 가치, 사회, 문화, 이념, 언어 등)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었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근대 세계관을 배경으로 출현한 근대 사회과학은 대체로 객체와 주체 중 어느 한 진영에 포진한 상태에서 이론적 입장을 정립했다. 국제정치학을 예로 들면 객체 진영에서 이론적 입장을 정리한 경우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행태주의, 실증주의 등을 꼽을 수 있고, 주체 진영에서 이론적 입장을 정리한 경우로는 이상주의, 구성주의, 포스트모던이즘 등을 꼽을 수 있다.[8] 또한 레이크가 지칭한 '법칙적 설명양식'은 객체 진영에 포진한 이론에서 추구한 설명양식이었고, '서술적 설명양식'은 주체 진영에 포진한 이론에서 추구한 설명양식이었다. 따라서 3차례에 걸친 국제정치이론의 대논쟁은 객체 진영과 주체 진영으로 양분된 근대 세계관 '내부에서' 전개된 근대 사회과학의 논쟁이었다. 그런데 주지하듯 근대 세계관은 20세기 초엽의 과학혁명

Quarterly 55 (2011), pp. 474-477.

7) Lake, "Theory is Dead, Long Live Theory," pp. 568-571.

8) 자세한 내용은, 이현휘, "화이트헤드와 근대 세계관의 철학적 성찰," pp. 155-158.

을 통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렇다면 근대 세계관에 뿌리를 둔 근대 사회과학 내지 근대 국제정치학 역시 이미 100여 년 전에 완전히 붕괴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나 국제정치학자는 근대 사회과학과 근대 국제정치학의 이면에 깔린 근대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형이상학적 성찰(a metaphysical reflection)을 방기했다. 그러다보니 그처럼 낡은 사회과학과 낡은 국제정치학이 학계에서 지금껏 온존하는 병폐를 낳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최종적 파국을 선언한다는 것은 약 100여 년의 지적 지체(intellectual lag)를 뒤늦게 고백하는 의미가 있었다.[9]

어찌해야 하는가?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학문을 '임시방편' 가설의 착종 상태(a medley of ad hoc hypotheses)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철학적 성찰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학문의 기초를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10] 화이트헤드의 지적을 참조할 때, 3차례에 걸친 국제정치이론의 대논쟁은 임시방편 가설의 착종을 반복한 역사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이 그런 역사를 걸어간 궁극적 이유는 국제정치이론의 이면에 잠복된 근대 세계관을 철저히 비판하는 작업을 방기한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국제정치학회지』의 편집위원들처럼 국제정치이론의 대논쟁이 중지된 까닭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질문 이전에 국제정치이론의 기초를 철저히 검토하는 형이상학적 성찰을 선결시켜야만 한다. 그런 연후에 국제정치이론의 기초

9) 인문사회과학의 지적 지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에롤 E. 해리스, 이현휘 옮김, 『파멸의 묵시록: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 (산지니, 2009).

10) Alfred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0), p. 25.

를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그렇게 모색한 대안 위에서 국제정치이론을 새롭게 구성하는 노력을 성실하게 전개해야만 할 것이다.[11]

이 논문에서는 먼저 화이트헤드가 검토한 근대 세계관의 특성을 약술할 것이다.[12] 이어서 근대 세계관의 주체 진영에 포진한 대표적 이론으로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던이즘을 선정한 다음, 그들 각 이론이 파국을 면치 못한 까닭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13] 끝으로 근대 세계관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되는 화이트헤드 철학에 입각해서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주관주의적 원리와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

국제정치이론의 파국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제오늘 들려온 것

11) 2013년『유럽국제정치학회지』특집에도 국제정치이론의 형이상학적 성찰을 강조하는 논문이 한 편 수록되었다. Christian Reus-Smit, "Beyond Meta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 (2013), pp. 589-608.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국제정치이론의 기초를 혁신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12) 필자는 근대 세계관의 형성 과정과 핵심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이현휘, "화이트헤드와 근대 세계관의 철학적 성찰," pp. 123-164.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근대 세계관의 전모를 소개하는 대신, 논지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약술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

13) 근대 세계관의 객체 진영에 포진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현실주의를 꼽을 수 있다. 필자는 현실주의가 파국을 면치 못한 까닭을 철학적으로 해명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현휘,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의 허상과 실상," pp. 55-96.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근대 세계관의 주체 진영에 포진한 이론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제한된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다.

은 아니다. 예컨대 존 루이스 개디스는 냉전 종식 직후 작성한 한 논문에서 국제정치이론 중 냉전종식을 예측한 이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국제정치이론의 존립근거 중 하나가 '예측'(forecasting, prediction)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냉전 종식을 예측하지 못한 국제정치이론은 근본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14] 또한 제임스 커스의 경우 1998년에 작성한 한 논문에서 국제정치이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현실과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동굴 안'에 틀어박혀 정책 결정자에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시한 얘기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케네스 월츠는 자신의 추상적 이론에 입각해서 핵무기가 확산될수록 국제사회의 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커스가 볼 때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 중에서 월츠의 주장이 유용하다고 판단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15]

개디스와 커스 등이 제시한 비판을 국제정치학계의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근대 세계관을 근원적으로 탈각하지 못한 국제정치학의 지적 지체 내지 패러다임 위기를 선구적으로 통찰한 연구였기 때문이다. 작금의 국제정치학 내지 인문사회과학 일반의 지성사적 위상은 화이트헤드의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 우리가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전개된 과학사상의 역사를 개관할

14) John Lewis Gadd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7:3 (1992/1993), pp. 5-58.

15) James Kurth, "Inside the Cave: The Banality of I.R. Studies," The National Interest 53 (1998), p. 33. 커스가 비판한 월츠의 주장에 관해서는,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 171 (1981).

경우 두 가지 기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과학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최초의 상식적 관념이 지녔던 특성을 하나씩 점차 폐기시켰다는 점이다. 이제 그런 관념 중에 '우주'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주요 특성을 지닌 것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명백한 것처럼 보였던 상식적 관념은 모든 해석의 기초로 작용하는 기능에 관한 한 완전히 폐기되었다. 모든 항목이 차례로 당초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17세기 이래 전개된 과학사상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17세기에 형성된 상식적 관념이 인류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시장에서, 운동장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사실상 인류의 사회적 교류 일반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권세를 부린다. 그것은 각종 문헌을 압도하며, 모든 인문학의 전제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자연과학은 인문학의 근본전제와 상충한다. 그러다보니 양자를 화해시키려는 시도는 종종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를 가정하곤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자 간의 화해란 불가능한 것이다.[16]

요컨대 자연과학은 20세기 초엽에 17세기의 1차 과학혁명을 대체할 수 있는 2차 과학혁명을 성취한 반면, 국제정치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은 2차 과학혁명에 상응하는 2차 인문사회과학혁명을 성취하지 못한 채 여전히 17세기 근대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지적 지체를 보인다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지적 지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제정치학의 이면에 잠복된 근대 세계관을 철저히 비판하는 '형이상학적 성찰'을 선결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근대 세계관 그 자체에 대한 명료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근대 세계관을 형이상학적으로 성찰한 연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17]

16) Alfred N. Whitehead, Modes of Thought (London: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8), pp. 177-178.

이 논문에서는 화이트헤드 철학에 입각해서 근대 세계관의 특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화이트헤드가 파악한 근대 세계관은 기계론적 자연관(the mechanistic view of nature)과 주관주의적 원리(the subjectivist principle)로 구성되었다. 기계론적 자연관은 근대과학의 물질이론(the theory of matter)을 서술적 일반화(descriptive generalization)라는 화이트헤드의 독특한 연구 방법에 따라 철학적으로 더욱 일반화시켜 도출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근대 세계관의 기계론적 자연관은 근대과학의 물질이론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근대과학의 물질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substance) 개념을 계승한 물질이 시공간 상에서 단순히 위치를 차지하는 것(simple location)으로 간주한다. 주관주의적 원리는 근대과학의 지각이론(the theory of perception)인 자연 이분의 이론(the bifurcation of nature), 즉 자연을 제1성질과 제2성질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이론(the theory of primary and secondary qualities)을 서술적 일반화 방법에 따라 철학적으로 더욱 일반화시켜 도출한 것이다. 자연 이분의 이론은 고대 그리스의 실체(substance)와 속성(attribute) 도식에 데카르트의 주관주의적 편견(the subjectivist bias)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 세계관의 기계론적 자연관과 주관주의적 원리는 모두 추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오류(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를 범했다. 화이트헤드는 그런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유기체적 자연관(the organic view of nature)과 개선된 주관주

17) 예컨대 W. von Leyden, Seventeenth-Century Metaphysics: An Examination of Some Main Concepts and Theories (New York: Barnes & Noble, 1968). Errol E. Harris, The Restitution of Metaphysics (New York: Humanity Books, 2000). E. A. Burtt, The Metaphysical Foundations of Modern Sci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24).

의적 원리(the reformed subjectivist principle)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18]

이 논문의 주제를 고려해서 주관주의적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화이트헤드는 주관주의적 원리의 3가지 전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주관주의적 원리는 경험의 행위에 주어진 데이터를 순전히 보편자(universals)로만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원리를 말한다. … 주관주의적 원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제로부터 도출된다. 1) '실체-성질'(substance-quality) 개념이 궁극적인 존재론적 원리를 표현한다고 간주한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실체(primary substance) 개념을 수용한다. 그것은 항시 주어만 될 수 있고, 술어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경험하는 주체를 제1실체로 간주한다고 가정한다.[19]

여기에서 주관주의적 원리의 3가지 전제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20] 다만 우리의 논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추출해 본다면 '실체로 간주한 정신이 세상을 해석하는 최종 거점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실체'란 그 자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자족적 존재를 의미한다.[21] 따라서 정신을 실체로 간주했다는 것은 정신을 주변 환경과 단절된 자

---

18) 이 문단의 내용은 근대 세계관의 개요를 압축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필자의 논문, "화이트헤드와 근대 세계관의 철학적 성찰"의 초록을 큰 수정 없이 옮긴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논문을 참고하라.

19) Alfred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p. 157.

20) 주관주의적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이현휘, "화이트헤드와 근대 세계관의 철학적 성찰," pp. 146-153.

21)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p. 159.

족적 단위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관주의적 원리에 따라 파악한 세상의 모습은 순전히 정신적 구성물이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우리는 근대 세계관이 기계론적 자연관과 주관주의적 원리를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이해하는 물질 역시 실체로 간주되었다.[22] 따라서 근대 세계관은 기계론적 자연관의 '물질'과 주관주의적 원리의 '정신'이 완전히 분리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근대 세계관을 가로지르는 철저한 균열을 브뤼노 라투르는 '대분열'(great divide)이란 용어로 표현했다.[23]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은 우리의 일상의 사유양식 역시 두 쪽으로 나누도록 강제했다. 우리의 사유에서 통용되는 객체(object)와 주체(subject)의 분리, 사실과 가치의 분리, 자연과 사회의 분리, 자연과 문화의 분리, 현실과 이상의 분리, 실재(reality)의 이념(ideas)의 분리, 실재와 언어의 분리,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정신과학, 문화과학)의 분리, 이과와 문과의 분리 등은 모두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이 강제한 것이었다. 또한 국제정치학에서 전개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간의 1차 대논쟁, 행태주의와 전통주의 간의 2차 대논쟁,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 간의 3차 대논쟁 역시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이 강제한 것이었다. 현실주의, 행태주의, 실증주의는 모두 기계론적 자연관을 근본전제로 수용한 이론인 반면, 이상주의, 전통주의, 후기 실증주의는 모두 주관주의적 원리를 근본전제로 수용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기계론적 자연관과 주관주의적 원

22) 이현휘,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의 허상과 실상," p. 66.

23) Bruno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by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p. 10-12.

리는 모두 '추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기계론적 자연관과 주관주의적 원리를 전제로 구성된 근대의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은 모두 현실 앞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론은 스스로 만든 추상의 지평에 긴박되어 현실에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하면서 마치 현실을 설명한 것처럼 '기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커스가 국제정치학은 자기들만의 동굴 안에 틀어박혀 현실과 동떨어진 시시한 얘기만 남발한다고 비판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런데 라투르에 따르면 근대 인문사회과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분열의 간극을 더욱 넓혀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24] 이는 근대 인문사회과학의 연구가 진척되면 될수록 현실과 더욱 동떨어진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제정치학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언 샤피로가 '현실에서 도피하는 인문사회과학'을 비판하고, 현실에 밀착된 인문사회과학을 역설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었다.[25]

국제정치학에서 주관주의적 원리에 입각해서 구성된 대표적 이론으로는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던이즘을 꼽을 수 있다. 두 이론을 형이상학적으로 성찰하면서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파국의 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자.

2.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

기계론적 자연관의 키워드가 '물질'이었다면, 주관주의적 원리의

24) Ibid., pp. 55-59.

25) Ian Shapiro, The Flight from Reality in the Human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키워드는 '정신'이다. 따라서 기계론적 자연관을 근본전제로 수용한 국제정치이론이 가치, 이념, 언어, 문화 등을 자각적으로 배제한 채 물리적 요인에만 주목해서 이론을 구성했다면, 주관주의적 원리를 근본전제로 수용한 이론은 전자의 물질 편향적 성격을 비판하고, 가치, 이념, 언어,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론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관주의적 원리를 근본전제로 수용한 국제정치이론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던이즘을 꼽을 수 있는데, 구성주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념'을, 그리고 포스트모던이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언어'를 각각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념과 언어는 모두 정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두 이론은 주체의 진영에 포진한 동종의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던이즘의 성격과 문제점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구성주의[26]를 대표하는 학자 3인방은 보통 니콜라스 오누프(Nicholas G. Onuf), 프리드리히 크라토치윌(Friedrich V. Kratochwil),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E. Wendt)를 꼽는데,[27] 그중에서도 구성주의를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학자는 웬트였다.[28] 따라서 웬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의 성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웬트의 출발점은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였다.[29] 웬트

---

26)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반적 성격을 명쾌하게 정리한 글로는, Robert Jackson and Georg Sø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61-177.

27) Maja Zehfus,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olitics of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10-23.

28)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을유문화사, 2003), p. 260.

29)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15.

가 월츠의 책을 읽었을 때 가장 불만스럽게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월츠가 국가를 군사력이나 국가이익과 같은 물질적 '능력'에만 입각해서 정의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웬트가 판단할 때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힘은 물질이 아니라 '이념'이었다. 따라서 웬트가 주력한 작업은 한 마디로 월츠의 이론에서 물질을 이념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웬트의 문제의식은 그가 쓴 책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웬트가 볼 때 국제정치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으로 되어있는 월츠의 책 제목은 정확하게 말해서 국제정치의 물질이론(Mater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을 뜻하는 것이었다. 월츠의 물질주의적 시각에 불만을 품은 웬트는 물질이라는 수식어를 이념을 뜻하는 '사회'라는 수식어로 교체하여 자신의 책 제목을 국제정치의 사회이론(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볼 때 웬트가 설정한 책 제목은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월츠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웬트의 책에서 이념을 다시 물질로 교체할 경우 웬트의 책과 월츠의 책은 거의 일치할 정도로 대칭관계에 있다. 이런 현상은 주관주의적 원리 위에 서있는 웬트와 기계론적 자연관 위에 서 있는 월츠가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따라서 웬트와 월츠 간의 치열한 논쟁은 어디까지나 근대 세계관 '내부에서' 벌어진 피상적 논쟁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논쟁의 한계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웬트는 이념이 물질보다 더욱 근원적인 범주라고 판단했다. 물리적 힘과 국가의 이익을 이념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파생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30] 따라서 월츠가 국가의 실체를

능력이라는 물질적 요인으로 정의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웬트는 국가를 이념의 담지자로 정의했다. 웬트가 볼 때 인간은 물리적 대상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 능력을 해석한 '의미'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31] 국가의 실체를 이념으로 정의하고 난 웬트는 월츠처럼 국제정치의 구조를 정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웬트 역시 월츠처럼 국가 단위의 이론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구조적 이론을 추구했기 때문이다.[32] 월츠는 미시경제학의 시장이론에 입각해서 국제정치의 구조를 정의했다.[33] 이와 달리 웬트는 사회학의 구조와 행위 이론(the agent-structure relationship)을 활용하여 국제정치의 구조를 정의했다. 구조와 행위 이론은 행위들의 상호작용이 일정 기간 이상 진행되면 행위 수준으로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이른바 창발적 속성(emergent property)이 출현하여 어떤 구조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웬트는 자신이 정의한 국가들도 일정 기간 이상 상호작용하면 창발적 속성을 지닌 국제정치적 구조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것으로 가정했다.[34] 그런데 웬트는 국가를 이념의 담지자로 정의했었다. 따라서 국가가 상호작용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이념들이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들이 공유하는 어떤 집단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35]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36]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37] 등과 같은 새로운 문화(culture)가 '창발'된다

30)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1. Jackson and Sø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p. 169.
31)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140.
32) Ibid., p. 11.
33) 이현휘,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의 허상과 실상," pp. 68-70.
34)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141, 143.
35) Ibid., pp. 159-160.
36) Ibid., p. 163.

고 보았다. 이렇게 창발된 문화를 웬트는 뒤르켕의 집합 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는데,[38] 바로 이것이 웬트가 찾고자 했던 국제정치의 구조였다. 웬트는 자신의 국제정치적 구조를 이념 내지 지식의 분포(the distribution of ideas or knowledge)[39]로 정의하면서 국가 능력의 분포로 정의했던 월츠의 물질주의적 구조 개념과 대비시켰다. 또한 웬트는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로 부르는 월츠의 이론과 대비해서 자신의 이론을 구조적 관념주의(structural idealism)라고 불렀다.[40]

웬트는 자신이 정의한 국제정치 구조 개념에 입각해서 냉전 종식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했다. 웬트가 볼 때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전환(structural change)은 곧 국가 간의 이념 내지 지식의 분포가 바뀐 문화적 전환(cultural change)을 의미했다. 따라서 냉전은 소련의 정치체제가 붕괴된 1991년의 시점에 종식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시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지중해의 몰타에서 만나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한 1989년 12월의 시점에 종식되었다고 해석했다.[41]

웬트의 구성주의는 세계 국제정치학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국제학술지에서 웬트가 쓴 『국제정치의 사회이론』을 비판적으로 리뷰하는 특집을 개설하는가 하면,[42] 웬트의 이론을 둘러싼 논쟁을 전문적으로 다룬 단행본까지 출간되었다.[43] 한국 학계에서

---

37)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June 1994), pp. 384-396.
38)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161.
39) Ibid., pp. 20, 24, 140,
40) Ibid., p. 1,
41) Ibid., p. 314.
42) 한 가지 예를 들면 “Forum on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 (2000).

도 "(웬트가) 지식의 분포(distribution of knowledge)라는 시각으로 국제 구조를 해석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44]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구성주의가 실증주의-탈실증주의의 논쟁 양극단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시도라는 점 하나로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45]하며,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실을 분석하는 수단으로서도 "웬트의 이론은 상당히 현실부합성과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46]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이론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구성주의"[47]는 "앞으로의 국제정치이론의 논의에서 … 자신의 증대된 비중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48]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웬트의 구성주의를 둘러싼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뜨거운 논쟁과 호의적 평가는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논쟁과 평가 자체가 국제정치학의 지적 지체를 단적으로 예증하기 때문이다. 웬트가 자신의 국제정치 구조와 동일시한 뒤르켕의 집합 표상

---

43) 예컨대 Stefano Guzzini and Anna Leander,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lexander Wendt and his critics (London: Routledge, 2006). 이 책을 다시 리뷰한 논문으로는, James F. Keeley, "To the Pacific? Alexander Wendt as Explore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5:2 (2007), pp. 417-430.

44) 양준희,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41:3 (2001), p. 33.

45)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계보와 역사,"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론, 2004), p. 64.

46) 같은 논문, p. 65. 구성주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분석한 사례로는,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하영선·김영호·김명섭 공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p. 431-463.

47)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50:2 (2010), p. 36.

48) 신욱희, "구성주의 이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p. 473.

개념은 뒤르켕 사회학의 방법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의 일종이다. 뒤르켕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된 근대의 세계관을 전제한 상태에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기초가 되었던 물질세계의 '자연적 사실'(natural fact)에 주목하고, 그것과 비견되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정신세계에서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사실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다. 이렇게 확보한 사회적 사실을 대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한다면 사회과학 역시 자연과학과 비견되는 과학성 내지 객관성을 획득함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49]

뒤르켕은 인간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 그 사회는 개개 인간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이 집합적으로 표상되는데, 그렇게 표상된 그 무엇은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에서 사회적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의 개개 구성원을 제거하면 남는 건 사회뿐이다. … 전체는 부분의 산술적 합계와 동일하지 않다. … 사회 역시 개개 인간의 단순 집합과는 다른 것이다."[50] 요컨대 사회적 사실이란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출현한 일종의 창발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뒤르켕은 개개 인간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사회적 사실이 역으로 개개 인간의 행동을 제약(constraint)하는 현상도 사회적 사실의 객관적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다.[51]

---

49) Emile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trans. by Sarah A. Solovay and John H. Mueller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pp. 1-13.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p. 52. Michael Halewood, "Subjectivity and Matter in the Work of A. N. Whitehead and Gilles Deleuze: Developing a Non-essentialist Ontology for Social Theor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2003), chap. I.

50)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pp. 102-103.

51) Ibid., pp. 101-102.

그런데 문제는 뒤르켕의 집합 표상이 물질과 단절된 순수 정신만의 기초 위에서 구성된 추상적 구조물이라는 사실이다.

> 뒤르켕은 집합 표상을 비물질적 사회적 사실(nonmaterial social facts)로 간주했다. … 그것은 물질과 단절된 순수 정신의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객관적 사실을 의미한다. 사회적 사실의 본질적 실체는 개개 인간의 마음과 사회의 도덕적 의식의 세계에서 존재한다.[52]

뒤르켕의 지적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칸트와 헤겔 등이 대표하는 독일 관념론 전통과 마주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53] 요컨대 뒤르켕의 집합 표상은 근대 세계관의 주관주의적 원리를 근본전제로 수용한 상태에서 구성된 추상적 구조물이었으며, 그런 추상적 존재를 사회 현실의 구체적 사실로 간주하는 오류, 즉 '추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뒤르켕의 방법론을 해설한 캐트린의 용어로 표현할 때, 집합 표상은 지극히 가설적인 존재(very hypothetical entity)[54]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뒤르켕의 관념론적 집합 표상을 계승한 웬트가 자신의 국제정치 구조를 구성하는 국가의 집합적 정체성을 '순수 지각적 현상'(cognitive phenomena)[55]으로 간주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웬트의 국제정치의 구조 역시 뒤르켕의 집합 표상처럼 추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오류

---

52) Deniz Tekiner, "German Idealist Foundations of Durkheim's Sociology and Teleology of Knowledge," Theory & Science (2002). http://theoryandscience.icaap.org/content/vol003.001/tekiner. html

53) Ibid.

54) George E. G. Catlin,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in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p. xiv.

55)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319.

를 범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56]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웬트는 자신의 국제정치 구조가 출현하는 과정을 '창발' 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창발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우리의 무지를 은폐하는 지극히 기만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 창조적으로 출현하는 내적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면서 마치 설명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80여 년 전 화이트헤드는 하버드대학교 강의에서 이 개념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 구리를 황산에 떨어뜨리면 질량과 에너지는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색깔은 변한다. 창발적 진화이론은 그렇게 새로운 속성이 단순히 창발(emerge)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묻는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창발했다는 말인가? 만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창발했다면 '창발'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의 무식함을 은폐할 뿐이며,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설명한 것처럼 현상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창발의 출발점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사전에 존재해야만 한다고 화이트헤드는 말했다.[57]

요컨대 화이트헤드는 "다수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창발적 진화란 있을 수 없다"(There is no emergent evolution concerned with multiplicity)[58]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웬트의 국제정치 구조 개념은

---

56) Cf. Bruno Latour, "What is Given in Experience," boundary 2 32:1(2005), p. 229.

57) Dwight C. Stewart, ed., "Whitehead's Harvard Lectures, 1926-27, Compiled by George Bosworth Burch," Process Studies 4:3 (1974), pp. 199-206.

58) Alfred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p. 30.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화이트헤드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출하는 우주의 창조적 진화 과정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허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은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여 년 전에 붕괴된 낡은 이론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앞으로 국제정치학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이론이 아니라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는 이론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웬트가 냉전의 종식을 설명하는 논리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웬트는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냉전 종식을 선언한 1989년 12월에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해석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들 부시가 2003년 5월 1일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 수년 동안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중동의 정치 지도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출한 평화 협상안이 빈번하게 와해되면서 중동의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역시 천신만고 끝에 2004년 10월 북미 간의 제네바 핵 합의가 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합의가 다시 와해되고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니다. 더 간단한 질문을

을 '합생'(concrescence)이란 개념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냈다. 합생 개념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면, 문창옥,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통나무, 1999), pp. 55-83. A. H. Johnson, Whitehead's Theory of Reality (Boston: The Beacon Press, 1952), pp. 16-36. Thomas E. Hosinski, Stubborn Fact and Creative Advance: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of Alfred North Whitehead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1993), chap. 3, 4, 5.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심삼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예컨대 단호하게 금연을 결심한 애연가가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웬트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한 상태에서 국제정치 현실 내지 인간의 역사를 순수 정신의 산물로 파악했다. 따라서 정신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사회 현실 또한 쉽게 변화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래서 그는 미소 간의 정상이 냉전 종식을 선언하자 냉전이 이내 종식되었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에 따를 때 사회 현실(reality)은 물질과 정신이 강고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존재한다.[59] 따라서 사회 현실은 인간의 의식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밖의 광범위한 세계로 끝없이 펼쳐진 상태로 존재한다. 전자는 인간의 자각적 결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후자는 그런 결단을 강하게 거부하는 '관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결단이 현실 세계에서 빈번하게 와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웬트의 이론은 바로 이 후자의 세계를 누락시키고 있었으며, 따라서 냉전 종식을 포함한 사회 현실 일반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요컨대 근대 세계관의 주관주의적 원리에 기초한 웬트의 구성주의는 "역사가 있는 국제정치학"[60]이 아니라,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국제정치이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웬트 역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대체로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며, 그래서 지금도 치열하게 그 방법을 찾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웬트가 월츠와 다른 점이다. 월츠는 자신의 이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생의 끝까지 자신의 이론을 고수했다.[61]

---

59) 자세한 내용은 제4절의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 참조.
60) 신욱희, "구성주의 이론," p. 468.

그러나 웬트는『국제정치의 사회이론』을 집필할 당시에도 근대 세계관의 '물질과 정신의 분리'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62] 웬트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을 심리 철학에서 물심 이원론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심신 수반이론(the theory of supervenience), 즉 "정신은 물질에 수반되어 나타난다."는 논리에서 찾았다.[63] 그리고 한 동안 수반이론의 해결책을 신뢰했다. 예컨대 웬트는 자신의 이론이 데카르트의 물심 이원론에 입각해서 구성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수반이론으로 응수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기 때문이다.[64] 이때가 2000년도였다. 그러나 2006년도에 쓴 논문에서는 데카르트의 물심 이원론의 의미를 자세하게 검토한 이후, 자신의 이론이 그것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65] 그러면서 웬트는 자신이 안고 있는 이론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의식'(quantum consciousness)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주목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책을 집필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목차까지 작성한 상태에 있다. 이런 모습은 웬트가 사실상 자신의 구성주의 이론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적 오디세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66]

그러나 적어도 화이트헤드의 시각에서 볼 때 양자 의식에 기초

61) 이현휘,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의 허상과 실상," p. 72.
62)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112.
63) Ibid., pp. 155-156.
64) Alexander Wendt, "On the Via Media,"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 (2000), pp. 166-167.
65)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An Auto-critique from a Quantum Perspective," in Guzzini and Leander,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p. 185-189.
66) Ibid., pp. 189-205. Alexander Wendt, "Quantum Mind and Social Science," http://www.quantum consciousness.org/views/QuantumMindAndSocialScience.html

한 웬트의 오디세이의 전망 역시 그렇게 밝지 않다. 양자 역학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정신 문제를 해명하려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정신을 물질로 해명하려는 기계론적 자연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벨 스땅제는 양자 의식에 기초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전망에 관한 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 나는 양자 의식의 연구에 전혀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리학주의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또 다시 물리학을 동원하여 치료하려는 발상이야말로 가장 재미없는 최악의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이트헤드의 『과학과 근대세계』 26쪽을 참고해 보세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67]

『과학과 근대세계』 26쪽을 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 관념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러한 관념들의 합리성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을 수정하는 데에는 더욱더 확고하게 반기를 들게 되었다. 그 후의 철학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관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과학은 하나의 표본으로서 다른 여러 분야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68]

요컨대 스땅제가 볼 때 양자 의식에 기초한 사회과학 연구 역시 현대판 물리학 선망(physics envy)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웬트는 자신이 그렇게 비판했던 월츠의 세계로 다시

67) 이자벨 스땅제와 인터뷰 (2008. 4. 25.)
68)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p. 26.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웬트가 안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분리 문제는 양자 의식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하면서 화이트헤드의 얘기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학문을 '임시방편' 가설의 착종 상태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철학적 성찰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학문의 근본전제를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는 바로 그 얘기를 말이다. 웬트는 『국제정치의 사회이론』에서 국제정치학이 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69] 또한 자신의 책의 헤드노트에서 "어떤 학문도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한 형이상학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No science can be more secure than the unconscious metaphysics which tacitly it presupposes.)[70]는 화이트헤드의 얘기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이 문장은 모든 학문의 의미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깔고 있는 근본전제의 허용 한계 안에서만 타당하며, 따라서 어떤 학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것의 근본전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철학적 과제를 선결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실제로 웬트는 이러한 철학적 마인드를 갖고서 『국제정치의 사회이론』을 집필했다. 책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국제정치학의 근본전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철학적 논의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웬트는 화이트헤드를 다른 저작에서 재인용했을 뿐,[71] 화이트헤드를 직접 연구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는 웬트가 지향한 연구 방향이 대체로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웬트 자신의

69)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22, 370-378.
70) 화이트헤드의 『발상의 모험』에 나오는 얘기다. Alfred N.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5), p. 158.
71)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370, fn., 1.

사유를 화이트헤드만큼 철저하게 밀고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월츠도 자신의 『국제정치이론』에서 환원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화이트헤드의 『과학과 근대세계』를 한번 인용했다.[72] 그러나 월츠가 『과학과 근대세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신의 『국제정치이론』과 같은 책은 결코 쓰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과 근대세계』의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월츠의 『국제정치이론』이 깔고 있는 근본전제, 즉 근대 과학의 기계론적 자연관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츠와 웬트의 연구는 우리 학계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위기를 외치기 이전에 우리들 자신의 사유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그리고 얼마만큼 철저하게 밀고 나가야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가 아니겠는가?

한편, 국제정치학계에서 구성주의로부터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논의가 일정하게 진척되고 나자 구성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새로운 학풍이 등장했다. 예컨대 사무엘 바킨은 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학계의 통념을 반박하고, 양자가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구성주의 입장에서 현실주의를 보완적으로 수용하는 '현실주의적 구성주의'(Realist Constructivism)를 대안으로 제시했다.[73] 바킨의 주장은 국제정치학계에서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바킨의 논문이 발표된 다음 해 바킨이 제기한 주장을 놓고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간의 양립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포럼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74] 이 포럼에서 눈에 띄는 논점 중 하나는 고전적 현실주의

72) 케네스 월츠, 박건영 옮김, 『국제정치이론』(사회평론, 2000), p. 36. fn., 1.
73) J. Samuel Barkin, "Realist Constructivis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2003), pp. 325-342.
74) Patrick Thaddeus Jackson, "The Forum: Bringing the Gap: Toward A Realist-onstructivist Dialogu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 (2004), 337-352.

입장에서 구성주의를 보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현실주의'(Constructivist Realism)였다.[75] 이후 구성주의적 현실주의에 공감한 일군의 학자는 고전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한스 모겐소를 구성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했고,[76] 바로 그런 방향에서 국제정치학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77]

그러나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양립을 모색하는 구성주의적 현실주의나 현실주의적 구성주의는 모두 화이트헤드가 경고했던 '임시방편 가설의 착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에 불과했다. 위에서 소개한 '현실주의-구성주의 포럼'에서 제니퍼 스털링-폴커는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를 연계시키려는 바킨의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바킨의 제안에는 그런 성찰이 누락되었다고 비판했다.[78] 화이트헤드의 시각에서 볼

---

75) Richard Ned Lebow, "Constructive Realism,"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 (2004), 346-348.

76) Michael C. Williams, "Hans Morgenthau and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Realism" in Williams, The Realist Tradition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82-127. Michael C. Williams, "Why Ideas Matt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ns Morgenthau, Classical Realism, and the Mor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 (2004), pp. 633-665. Vibeke Schou Tjalve, "Hans J. Morgenthau: The Realist Polity between Purpose and Dissent" in Tjalve, Realist Strategies of Republican Peace: Niebuhr, Morgenthau, and the Politics of Patriotic Diss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p. 97-133.

77)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고찰," pp. 55-57.

78) Jennifer Sterling-Folker, "Realist-Constructivism and Morality," International

때 스털링-폴커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외면한 채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사이에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각했으며, 설혹 그것을 자각했다손 치더라도 대분열이 관철된 근대 세계관 그 자체를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the invincibility of the Moderns)[79] 전혀 예상치 못했다. 따라서 그들의 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된 국제정치이론의 3차례 대논쟁처럼 또 다시 임시방편 가설의 착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

3. 포스트모던 국제정치이론

포스트모던 국제정치이론은 사정이 어떠할까? 아주 거칠게 말하면 구성주의의 '이념'을 '언어'로 교체할 경우 구성주의는 포스트모던이즘과 거의 유사한 이론이 된다.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던이즘 모두 주관주의적 원리를 근본전제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이즘에 관한 평가는 구성주의에 관한 평가를 그대로 차용해서 충당해도 거의 무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이즘의 키워드는 '언어'(language)다. 물론 포스트모던이즘을 구성하는 다양한 전문용어들(technical terms)이 있다. 예컨대 담론(discourse), 기호(semiotics), 텍스트(text), 글쓰기(writing), 문화(culture), 정체성(identity), 지식(knowledge), 권력(power), 해체(deconstruction) 등을

Studies Review 6 (2004), pp. 341-343.

79)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pp. 37-39.

쉽게 열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이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언어가 문제가 되는가? 포스트모던이즘에서 언어에 새롭게 주목한 까닭은 한마디로 언어와 객관적 실재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그동안 언어를 객관적 실재를 지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언어관을 수용할 경우 우리가 객관적 실재에 다가서는 방법은 간단했다. 객관적 실재를 지시하는 언어의 의미를 성실하게 분석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역사라는 객관적 실재에 다가서려면 그것을 지시하는 사료의 언어를 분석하면 되고, 국제정치 현실에 다가서려면 그것을 지시하는 각종의 언어들, 예컨대 외교문서, 회고록, 조약문서, 연설문 등에 쓰인 언어를 분석하면 되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이즘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노력들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다. 언어는 객관적 실재를 지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 실재와 단절된 상태에서 지극히 자의적인 의미를 남발하는 추상적 기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의 이름은 '이현휘'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현휘라는 단어를 쳐보면 나와 동일한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현휘라는 동일한 이름이 나와 그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이현휘라는 이름과 나라는 사람, 또는 이현휘라는 이름과 그라는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이 나와 그에게 붙여진 사건은 지극히 우연적이고 자의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한국말을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Yi, Hyunhwee'라는 영문 알파벳으로 수정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은 가만있는데, 나의 이름이 나와

전적으로 무관한 상태에서 지극히 자의적인 변신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현휘'나 'Yi, Hyunhwee'라는 추상적 기호를 분석하여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일반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간 포스트모던이즘은 언어의 객관적 지시대상 대신, 객관적 실재를 지시하는 것처럼 기만한 언어의 자의적 메커니즘 그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심의 전환을 보통 '언어로의 전환'(linguistic turn)[80]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을 언어로 전환시켰을 때 언어 밖의 객관적 실재 그 자체 대신, 실재에 대한 '언어의 해석 양식'(the mode of interpretation)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냉전기 미국 외교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소련이라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소련을 이해하는 미국의 해석 양식이 된다.[81] 그런데 미국이 소련을 해석하는 양식은 예컨대 중국이 소련을 해석하는 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트루먼과 모택동이 각각 해석한 스탈린의 모습은 분명 다를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 그런

80) 언어로의 전환에 관한 전반적 해설로는, 조지형, 『랑케 & 카: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김영사, 2006), pp. 163-197. 조지형,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호학적 역사학: 화쟁 기호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65 (2000), pp. 147-155. 조지형,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출판, 2002), pp. 200-262. John E. Toews, "Intellectual History after the Linguistic Turn: The Autonomy of Meaning and the Irreducibility of Experienc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2:4 (Oct., 1987), pp. 879-907. Katherine Rudolph, "The Linguistic Turn Revisited: On Time and Language,"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17:2 (2006), pp. 64-95. Barry Allen, "Turning Back the Linguistic Turn in the Theory of Knowledge," Thesis Eleven 89 (May 2007), pp. 6-22.

81) David Campbell,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pp. 195-199.

해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일차적으로 그것은 트루먼과 모택동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온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 자명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문법, 관습, 역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실천의 맥락(a broader matrix of social practices)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그런 해석에 입각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의 실천적 맥락을 '담론'(discourse)이라고 부른다.[82] "담론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회의 관습과 사회에 정착된 일련의 가정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언어와 텍스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83]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실재란 사실상 우리가 의존하는 담론에 의해서 '해석된' 실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담론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담론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 없다"(there is nothing possible outside of discourse).[84] 따라서 포스트모던이즘의 시각에서 볼 때 담론 밖의 객관적 실재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실재가 설혹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담론에 의존해서 해석한 실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데리다가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는 텍스트 밖으로 나가면 객관적 실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 실재 그 자체도 오직 우리의 해석을

82) Jim George, Discourse of Global Politics: A Critical (Re)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1994), pp. 29-30.
83) Walter L. Hixson, "Appendix A: Discourse and Disciplinary Knowledge," in Hixson,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National Identity and U.S. Foreign Poli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p. 309.
84) Campbell, Writing Security, pp. 4, 22.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텍스트와 같다는 뜻이었다.[85] 그렇다면 객관적 실재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론에 의존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만이 가능할 뿐이다.[86] "담론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무엇에 '관한' 학습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어떤 것을 우리의 실재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는 담론에 의존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지각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요컨대 담론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준다."[87]

담론은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해석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재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 하게 된다. "모든 '실재'는 언어의 표상 양식(a mode of representation)을 매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표상은 사실 세계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사실성을 창조하는(making facticity) 방식을 의미한다. … 따라서 실재를 만드는 양식(modes of reality-making) 그 자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88]

---

85) 조지형, "포스트모던 역사이론과 '열린' 역사학," 『역사학보』 167 (2000), pp. 456-457. 조지형,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p. 227, fn. 49. Richard Devetak, "Postmodernism," in Scott Burchill and Abdrew Linklater et al.,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p. 188.

86) Campbell, Writing Security, p. 6.

87) Bradley S. Klein, Strategic Discourse and Its Alternatives. Center on Violence and Human Survival Occasional Paper 3. (New York: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1987), p. 4. George, Discourse of Global Politics, p. 30에서 재인용.

88) Michael J. Shapiro, "Textualizing Global Politics," in James Der Derian and Michael J. Shapiro, eds., International/ Intertextual Relations: Postmodern Readings of World Politic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9), pp.

포스트모던이즘은 담론이 삶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시각을 국제정치학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즉 담론이 창조하는 현실이란 곧 국가의 정체성 내지 문화를 의미하고, 다시 그런 정체성은 국가의 대외정책을 일정 방향으로 강제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담론이 국가의 정체성을 창조한다는 주장을 들어보자.

> 따라서 의미와 정체성은 항상 나와 타자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해석을 부과함으로써(the imposition of an interpretation)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해석 이전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의 배타적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89] … 미국의 국가 정체성은 언어로 표상된 미국의 정체성, 즉 미국의 신화라는 상징적 지평으로부터 출현하는데, 이 때 미국의 신화란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지 객관적 실재 그 자체가 아니다.[90]

국가의 대외정책은 상대 국가의 객관적 현실보다는 담론을 통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볼 때 냉전 시기 스탈린을 상대하는 트루먼과 모택동의 해석이 달랐던 까닭은 미국과 중국의 정체성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었다.[91]

>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정체성을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92] … 이 책의 주제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미국의 정체성과 미국 대외정책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13-14.

89) Campbell, Writing Security, p. 23.

90) Walter L. Hixson, “Appendix D: Identity and Lacanian Psychoanalytic Theory,” in Hixon,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pp. 317-318.

91) Campbell, Writing Security, p. 1.

92) Hixson,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p. 7.

것이다. 나는 미국의 정체성이 문화적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패권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정체성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일정 방향으로 강제하고, 미국 국내정치의 위계구조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문화적 패권으로부터 출현하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정체성을 예시해보면 남성적 우월성과 인종적 우월성, 신의 섭리가 예정한 '자유의 횃불,' 세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소유한 국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패권적 국가정체성은 빈번한 전쟁을 포함한 전투적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93]

지금까지 논의한 포스트모던이즘을 다시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담론과 객관적 실재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런 단절이 불가피했던 까닭은 사실상 언어를 '실체'의 일종으로 간주한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시각에서 볼 때 언어를 자족적 실체로 간주한 바로 그 전제로부터 포스트모던이즘의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다. 화이트헤드는 언어의 성격을 이렇게 평가한다.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정서(emotion)가 … 우리의 삶을 90% 정도 지배합니다. 우리의 두뇌가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몸을 경유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식별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뇌의 지적 활동과 몸의 정서적 체험 간의 관계는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의 몸 그 자체의 관계 간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는다면 문명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몸은 없고 옷만 있는 상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94] … 우리의 깊은 직관을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93) Ibid., pp. 1-2.
94) Alfred N. Whitehead, Dialogues of Alfred North Whitehead, As Recorded by

> 우리가 언어로서 직관을 표현하는 순간 그 직관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도망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시 언어라는 것이 분명한 의미를 갖는 고정된 사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에 빠져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언어의 의미는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변화무쌍한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가 말로 표현하려는 것의 대부분은 언어의 범주 밖에서 존재합니다.[95]

화이트헤드의 용어로 표현할 때 포스트모던이즘은 인간의 체험에서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를 모두 제거하고,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를 수단으로 90%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로의 전환을 선도한 리처드 로티가 바로 그런 태도를 취한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일찍이 로티는 '느낌'(feeling)을 강조하는 화이트헤드의 시각을 몽상으로 간주해 버리고, '언어'(talking)만 있으면 화이트헤드가 제기한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느낌의 세계를 자각적으로 제거하는 입장을 취했다.[96] 그리고 그런 태도를 평생에 걸쳐 견지했다. 그러나 이자벨 스땅제는 "화이트헤드의 시각에서 볼 때 로티의 선택은 루비콘 강 앞에서 발길을 돌려버린 처사에 지나지 않았다"(for whitehead it would mean let us cross back the Rubicon.)[97]고 비판한다.

포스트모던이즘에서 정의하는 정체성 내지 문화는 10%의 언어

Lucien Pric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6), p. 188.

95) Ibid., p. 238.

96) Richard M. Rorty, "The Subjectivist Principle and the Linguistic Turn," in George L. Kleine, ed., Alfred North Whitehead: Essays on His Philosoph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pp. 151-153. Daniel Dombrowski, "Rorty versus Hartshorne, or, Poetry versus Metaphysics," Metaphilosophy 38:1 (January 2007), pp. 93-94.

97) 이자벨 스땅제와 인터뷰 (2008. 4. 25.)

를 수단으로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연한' 성격을 띤다. 그러나 문화는 사실상 10%의 언어와 90%의 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고한' 성격을 띤다. 전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힉슨과 후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헌트의 얘기를 각각 들어보자. 먼저 힉슨은 미국의 정체성 내지 문화란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트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헌트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 대외정책이란 담론을 통해 만들어지고, 언어로 표상되며, 사회에서 의례로 자리 잡은 문화적 경계로부터 출현하는 법인데, 헌트는 이데올로기에 물든 일관된 행동 프로그램으로부터 대외정책이 출현한다고 본다."[98]

헌트가 이해한 '이데올로기' 개념은 예컨대 마르크스의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정치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10%의 언어와 90%의 정서를 모두 포괄하면서 인간의 언어 밖에서 존재하는 광범위한 역사적 지평에 강고하게 뿌리내린 어떤 이념의 덩어리를 의미한다.[99] 헌트는 힉슨이 비판한 자신의 책 '한국어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 나는 1990년대 내내 외교정책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역할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학풍이 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중반쯤 연구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나서야 나는 얼마나 많은 새로운 연구들이 - 당시 내가 쓴 글로 표현하면 - "국제정치

98) Hixson,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p. 319. fn. 10.

99) 헌트의 이데올로기 개념에 관해서는, 마이클 헌트, 권용립·이현휘 옮김,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산지니, 2007), pp. 31-68. Michael H. Hunt, "Ideology" (revised and extended version of a 1991 article), in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ed. Michael J. Hogan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221-240.

학계의 보편적 해석방법들 속에 특정한 신념, 전제, 담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01년에 쓴 논문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이념이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에 관해서 당시 활동하던 학자들의 견해와 나 자신의 연구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족, 인종, 혁명 등과 관련해서 미국인이 소유한 일련의 편견이 매우 고질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것이 매우 유동적이고 변화하기 쉬운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자의 관점과 외교정책의 전제가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과 전제의 안정성과 연속성, 또는 우연성이나 가변성이 대외관계와 관련된 담론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내가 역사의 심층을 지속적으로 관류하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를 파악한 까닭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확신에 토대를 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인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특징들, 예컨대 노예 경제, 자발적인 이주 노동자, 백인이 지배하는 국가, 강력한 기업 질서 등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즉 그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깊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확신입니다.[100]

헌트는 힉슨의 책을 원고 형태로 읽은 후 자신의 이데올로기 개념에 입각해서 조언했지만, 힉슨은 헌트의 시각을 '낡은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101] 힉슨의 포스트모던이즘 시각에서 볼 때 그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100) 마이클 헌트, "한국 독자들에게," 헌트,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 pp. 14-15.

101) 마이클 헌트와 인터뷰 (2008. 6. 3.)

화이트헤드의 시각에서 볼 때 낡은 것은 흑슨의 시각이요, 새로운 것은 헌트의 시각이었다. 헌트의 이데올로기 개념은 근대의 세계관 '밖에서' 존재하는 반면,[102] 포스트모던이즘이란 결국 모던이즘의 일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이즘의 철학적 기초를 찬찬히 추적하다보면 곳곳에서 니체, 칸트, 흄, 데카르트 등과 마주칠 수 있다.[103] 흄과 포스트모던이즘을 비교하는 연구가 적지 않게 눈에 띠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104] '포스트모던이즘은 모던이즘을 완성했다'(postmodernism completes modernism),[105] '모던이즘과 다를 바 없는 포스트모던이즘'(postmodernism as modernism)[106] 등의 논의 역시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다. 라투르의 경우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 근대의 세계관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으며, '포스트모던'이라는 뻔뻔한 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철학적 거점은 끝끝내 근대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107]고 혹평한다. 스땅제는 언어로

---

102) 헌트의 이데올로기 개념에 깔린 철학적 기반을 화이트헤드 시각에서 검토한 사례로는, 이현휘,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연다: 친미와 반미 논쟁의 철학적 해체," 『미국사연구』 25 (2007), pp. 17-21.

103) James Arlandson, "The Origins of Postmodernism" American Thinker (March 31, 2007). Michael J. Penfold, "Postmodernism," http://www.webtruth.org/articles/cultural-issues-26/postmodernism-35.html

104) Fred Wilson, "Hume and Derrida on Language and Meaning," Hume Studies XII:2 (November, 1986), pp. 99-121. Zuzana Parusnikova, "Against the Spirit of Foundations: Postmodernism and David Hume," Hume Studies XIX:1 (April, 1993), pp. 1-18. John Skorupski, "The Post-Modern Hume: Ernest Geller's 'Enlightenment Fundamentalism,'" in Skorupski, Ethical Explor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255-286.

105) Wm Tingley, "An Exchange on Hume, Postmodernism, and Lost Knowledge," Vulcan's Mercy: History Matters (October 11, 2007). http://localareawatch.typepad.com/vulcans_mercy/2007/10/an- exchange-on-.html

106) Denis Corish, "Postmodernism as Modernism," The Harvard Review of Philosophy 2:1(1992), pp. 17-19.

107) Bruno Latour, "Postmodernism? No, Simply Amodern! Steps Towards an

의 전환의 근본전제를 '자연 이분의 이론'의 일종으로,[108] 그리고

Anthropology of Science,"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21:1 (1990), p. 169.

108) Isabelle Stengers, "A Constructivist Reading of Process and Reality," Theory, Culture & Society 25:4 (2008), p. 102. 한편, 스땅제는 이 논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구성주의의 의미와 여타 학자가 사용하는 구성주의의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한다. Ibid., pp. 92-94. 필자가 볼 때 스땅제가 사용하는 구성주의는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개선된 주관주의 원리'(자세한 내용은 제4절 참조)를 근본전제로 수용한 개념인 반면, 여타 학자가 사용하는 구성주의는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주관주의적 원리'를 근본전제로 수용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기존의 낡은 용어로 새로운 사상을 담아낼 수 없을 때, 낡은 용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용어를 창안해서 새로운 사상을 적절하게 담아내고자 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신조어'(neologism)가 많이 등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신조어 정신을 상기할 때, 스땅제가 구성주의라는 낡은 개념을 사용해서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라는 새로운 사상을 담아내고자 한 시도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시도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않고, 낡은 부대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땅제는 구성주의라는 낡은 용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사상을 담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성주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매번 그것이 여타 학자의 구성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해야만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대가는 사유의 창의적 도약을 억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한다. "통속적 개념은 창의적 사유를 억제하는 주범이다. 통속적 개념에 따라 판단할 경우 새로운 사상은 낡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통속적 개념은 창의적 사유를 억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Alfred N. Whitehead,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 116. 최근 라투르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 표현하던 관행을 포기하고, 합성(composition)이란 새로운 용어를 선택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본다. 라투르 역시 자신의 구성주의를 설명할 때마다 여타 학자의 구성주의와 다르다는 추가적 설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라투르가 구성주의 대신 합성이란 용어를 선택한 사실에 관해서는, 브뤼노 라투르, 이세진 옮김,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사월의

프래서의 경우는 '감각주의적 학설'(the sensationalist doctrine)의 사례로 각각 파악했다.[109] 그렇다면 포스트모던이즘이란 결국 '하이퍼모더니티'(hyper-modernity)[110]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의 근본전제가 주관주의적 원리였던 까닭에 '추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또한 불가피했다. 라투르는 그런 오류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기호론'(semiotics), '기호학'(semiology), 또는 '언어로의 전환' 등 어떤 용어로 부르던지 이런 철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담론을 인간이라는 주체와 자연 세계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가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 모두로부터 독립된 매개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언어의 의미 영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20세기의 지난 반세기동안 일급 철학자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만일 포스트모더니스트들 역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였다면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는 모더니스트들의 주장처럼 '인간을 잃어버렸다'거나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연구영역을 담론의 영역으로만 한정시켰기 때문이었다.

책, 2012), pp. 36-37.

109) 화이트헤드는 주관주의적 원리와 감각주의적 원리(the sensationalist principle)를 묶어서 감각주의적 학설(the sensationalist doctrine)로 통칭한다. 감각주의적 원리는 주관주의적 원리와 달리 심리적 덧칠(psychic additions) 내지 정신적 투사(mental projections)를 결여한 순수한 감각(mere sensation)을 지각 자료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각주의적 학설 역시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을 전제로 성립했다. 자세한 내용은,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p. 157. Miriam Fraser, "The Ethics of Reality and Virtual Realty: Latour, Facts and Value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9:2 (2006), pp. 56-57.

110) 스땅제의 용어다. Isabelle Stengers, "Experimenting with Refrains: Subjectivity and the Challenge of Escaping Modern Dualism," Subjectivity 22 (2008), p. 41.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 자연 세계에 대한 언어의 지시 문제를 제거하는 한편, 말하고 생각하는 인간 주체의 정체성까지 제거하지 않고서는 언어의 의미 영역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그로 인해 언어가 그 자체의 법칙, 즉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되어버렸다. '언어체계'(the 'system of language'), '언어게임'(the 'play of language'), '기표,' '글쓰기,' '텍스트,' '텍스츄얼리티,' '이야기,' '담론' 등은 모두 바르트가 쓴 책의 제목을 확대 해석한 '기호의 제국'(the Empire of Signs)의 멤버들이다. … 모든 것이 기호나 기호체계로 전락해 버렸다. 예컨대 건축, 요리, 패션, 신화, 정치, 심지어는 인간의 무의식 그 자체까지 말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약점은 그들이 임시로 해고시켜버린 것, 즉 자연이라는 지시대상과 사회나 주체라는 발화자를 자율적인 담론과 연결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다.[111]

4.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와 '관습'

화이트헤드는 근대 세계관의 주관주의적 원리의 대안으로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를 제시했다.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의 요체는 실체로 파악했던 기계론적 자연관의 물질과 주관주의적 원리의 정신을 각각 유기체로 대체한 다음, 양자를 합리적으로 연결시켜 마련한 것이었다. 실체는 주변 환경과 단절된 자족적 단위인 반면, 유기체는 주변 환경과 적극 소통하면서 존재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물질과 정신을 모두 유기체로 파악할 경우 양자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111)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pp. 62-64.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물질과 정신이 긴밀하게 연계되었기 때문에 근대 세계관을 관철했던 '대분열'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었다.[112]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를 근본전제로 수용해서 국제정치이론을 구성하고자 할 때 우리가 착안해야 할 현실적 차원은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제시한 '관습'(prejudice)이다. 역사의 이면을 수백 년 이상 관철할 정도로 강력한 관성을 지닌 관습은 정신과 물질의 긴밀한 연계를 요체로 삼는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113] 버크의 관습과 유사한 차원에 착안해서 국제정치를 연구한 사례로는 앞에서 소개한 마이클 헌트의 『이데올로기와 미국외교』, 그리고 권용립의 『미국의 정치 문명』[114] 등을 꼽을 수 있다. 헌트의 '이데올로기'와 권용립의 '정치 문명'은 버크의 관습처럼 역사의 이면을 장기간 관

112) 국내외 화이트헤드 학계에서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분분하다. 필자는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를 둘러싼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현휘, "화이트헤드와 근대 세계관의 철학적 성찰," pp. 149-153.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를 비교적 정확하게 소개한 사례로는, Hosinski, Stubborn Fact and Creative Advance, pp. 36-44. Ivor Leclerc, Whitehead's Metaphysics: An Introductory Exposi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8), pp.119-123, 124, 126. David R. Mason, "Whitehead's Analysis of Perception as a Basis of Conceiving Time and Value," Zygon 10:4 (1975), pp. 401-406.

113) 개선된 주관주의적 원리는 화이트헤드의 상징이론과 유사한 구조를 지녔다. 두 이론 모두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을 넘어선 이론이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상징이론으로 역사적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에드먼드 버크의 '관습'을 소개했다. 관습의 완고한 관성은 특히 상징이론의 '인과적 효과성'(causal efficacy)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Alfred N. Whitehead,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G. P. Putnam's Sons, 1959), pp. 70-73.

114)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명』(삼인, 2003).

철하는 강력한 관성을 지녔다.[115] 필자 역시 버크의 관습에 착안해서 국제정치를 이해하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16][117]

115) 버크의 관습, 헌트의 이데올로기, 권용립의 정치 문명의 철학적 기반을 화이트헤드의 상징이론에 입각해서 검토한 사례로는, 이현휘, "미국 혁명의 종교적 기원 (I): 화이트헤드와 탈근대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화이트헤드연구』11(2005), pp. 9-40. 이현휘,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연다,pp. 17-21. 이현휘, "문명으로서의 미국 읽기,"『당대비평』21 (2003 봄), pp. 424-434.

116) 이현휘, "미국 대외정책의 관습과 21세기 미중관계의 전망,"『미국사연구』29(2009), pp. 157-198. 이현휘, "소명으로서의 전쟁: 미국 대외정책 정신과 신의 눈물,"『현대사회와 정치평론』창간호 (2007), pp. 7-59.

117) 최근 테드 호프 역시 막스 베버,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 피에르 부르디외 등이 제시한 '습관'(habit)에 착안해서 국제정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서 눈길을 끈다. Ted Hopf, "The Logic of Habit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6:4 (2010), pp. 539-561. 그러나 호프는 자신이 소개한 여러 학자의 습관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을 선결시키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들 학자가 각각 제시한 습관은 용어는 동일하지만 그것의 철학적 기반은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우선 호프는 자신의 이론적 기반을 구성주의에서 마련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프는 이미 오래전에 구성주의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을 작성했다. Ted Hopf,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3:1(Summer, 1998), pp. 171-200. 그리고 최근에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냉전을 재해석한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Ted Hopf, Reconstructing the Cold War: The Early Years, 1945-195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하지만 우리가 이 논문의 2절에서 상세히 검토한 것처럼 구성주의는 주관주의적 원리를 근본전제로 수용한 이론이라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스땅제와 라투르에 따를 경우 피에르 부르디외 역시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을 근본전제로 수용한 상태에서 이론을 구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Isabelle Stengers, "An Ecology of Practices," Cultural Studies Review 11:1 (2005), p. 190.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p. 5.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는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을 선구적으로 극복한 학자였다. 그리고 그의 그런 아이디어는 화이트헤드가 대분열의 극복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했다. 화이트헤드가

수용한 제임스 사상의 유산에 관해서는, Victor Lowe, “William James and Whitehead’s Doctrine of Prehens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38:5 (1941), pp. 113-126. Marcus Peter Ford, William James’s Philosophy: A New Perspective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2). Leandro Martin Gaitán “WJ & Whitehead’s ‘Philosophy of the Organism,’” Streams of William James 2:3 (2000), pp. 8-9. Michael Weber, “Whitehead’s Reading of James and Its Context, Part One,” Streams of William James, 4:1 (2002), pp. 18-22. Michael Weber, “Whitehead’s Reading of James and Its Context, Part Two,” Streams of William James, 5:3 (2003), pp. 26-31. Scott Sinclair, “William James as American Plato?” William James Studies, 4 (2009), pp. 111-129. 따라서 제임스가 제시한 습관은 주관주의적 원리에 터전을 둔 구성주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제임스의 습관에 관해서는, William James, Habit (New York: Henry Holt and Co., 1914).

베버가 제시한 습관 역시 구성주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 물론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 베버의 철학적 기반을 신칸트학파에 귀속시켜 이해하는 것이 통례다. 그리고 칸트 철학은 주관주의적 원리에 입각해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p. 157), 베버를 구성주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베버를 신칸트학파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통념 역시 베버의 철학적 기반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보통 베버의 사회학은 이론 경제학을 옹호한 칼 멩거와 역사학파 경제학을 옹호한 구스타프 슈몰러 사이에서 전개된 19세기 방법론 논쟁(Methodenstreit)을 창의적으로 종합해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방법론 논쟁은 행태주의(과학주의)와 전통주의(역사주의)가 격돌한 국제정치학의 2차 대논쟁처럼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을 사이에 두고서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Samuel Bostaph, “The Methodological Debate Between Carl Menger and the German Historicists,” Atlantic Economic Journal, 6:3 (1978), pp. 3-16. Samuel Harvey Bostaph, “Epistemological Foundations of Methodological Conflict in Economics: The Case of the Nineteenth Century Methodenstreit,”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76). 따라서 베버의 사회학은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을 사회과학 진영에서 선구적으로 극복한 성취로 평가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베버가 성취한 사회학의 전모는 국내외 학계에서 지금껏 명쾌

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베버의 사회학은 근대 세계관 '밖에서' 성립했지만, 베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근대 세계관 '내부의' 낡은 시각으로 베버의 사회학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리드리히 텐부룩과 차성환은 방법론 논쟁의 대안으로 등장한 베버의 사회학에서 법칙추구과학(Gesetzeswissenschaft)을 포기하고 현실탐구과학(Wirklichkeits-wissenschaft)을 추구했으며, 사회과학의 인과과계(causality) 또한 포기했다고 해석했다. 프리드리히 텐부룩, 차성환 편역,『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문학과 지성사, 1990). 차성환, "독일 사회과학의 오리엔탈리즘: 막스 베버를 중심으로,"『담론201』7:1 (2004), 273-302. 하지만 이들은 법칙추구과학과 현실탐구과학의 준별이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이 강제했다는 사실, 또한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포기할 경우 사회과학이란 학문의 과학성 내지 학문성의 존립 근거 그 자체가 사라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몰각하고 있다. 베버의 사회학에서 추구하는 인과관계의 요체는 비교사회학적 방법을 통해 '의미적합성'(adequacy on the level of meaning)과 '인과적합성'(causal adequacy)을 동시에 충족한 '사회학적 규칙'(sociological rule)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Max Weber, "Basic Sociological Terms" in Weber, Economy and Sociolog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trans.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p. 4-22. Max Weber, "Critical Studies in the Logic of the Cultural Sciences" in Weber, Max Weber: Collected Methodological Writings, ed. by Hans Henrik Bruun and Sam Whimster, trans. by Hans Henrik Bruun (London: Routlege, 2012), pp. 169-184. 베버의 사회학에서 추구하는 인과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소개한 사례로는, Andreas Buss, "The Concept of Adequate Causation and Max Weber's Comparative Sociology of Relig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0:2 (1999), pp. 317-329. Michael Heidelberger, "From Mill via von Kries to Max Weber: Causality,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in Uljana Feest, ed., Historical Perspectives on Erklären and Verstehen (New York: Springer, 2010), pp. 241-265. Ola Agevall, "A Science of Unique Events: Max Weber's Methodology of the Cultural Science," Ph. D. dissertation, Uppsala University (1999), chap. 7, "The Theory of Adequate Causation."

또한 김경만의 경우 방법론 논쟁의 핵심을 명쾌하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버를 신칸트학파의 시각에서 파악하는가 하면, 베버가 방법론 논쟁의 대안으로 제시한 이념형을 베버의 사회학에서 추구한 '이론'으로 파악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념형은 이론이 아니라 '최근류와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 출간된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포스트모던이즘 등과 같은 근대 국제정치이론을 표준적인 국제정치이론으로 소개한다. 국제정치학 강의실에서도 그런 이론을 표준적인 이론으로 소개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런 교과서와 그런 강의는 결국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파국을 맹목적으로 답습하게 만드는 기제였다. 그런데 한국 국제정치학은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국제정치학 다음으로 높은 성격을 지녔다.[118] 과거 조선은 중국 주변의 수많은 조공국 중에서 중국적 가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답습한 국가였다.[119] 그러면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의 격랑에서 19세기 조선의

종차'로 정의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론을 대체한 새로운 개념론이다. 베버의 사회학에서 추구한 이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김경만의 논의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가 누락되었다. Kyung-Man Kim, "Max Weber's Axiological Critique of the Methodology of the Human Sciences: The Methodenstreit and Ideal Typ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4 (2008), pp. 99-111.

이자벨 스땅제에 따르면 화이트헤드 철학은 궁극적으로 근대 세계관의 대분열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Stengers, "A Constructivist Reading of Process and Reality," p. 98. 따라서 근대 세계관의 대안으로 제시된 화이트헤드 철학에 입각해서 근대 세계관 밖에서 성립한 베버의 사회학을 형이상적으로 성찰할 경우 베버가 추구한 사회학의 전모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 볼 수 있다고 본다.

118) K. J. Holsti, The Dividing Discipline: Hegemony and Diversity in International Theory (Boston: Allen & Unwin, 1985), pp. 109-110. 박상섭·하영선, "미국 국제정치학의 추세와 한국 국제정치학의 상황,"『국제정치논총』35:1 (1995), pp. 303-313. 유진석·박건영, "국제정치 연구의 한국적 현실과 대안을 위한 방향 모색,"『아태연구』15:1(2008), pp. 57-71.

119) Benjamin I. Schwartz, "The Chinese Perception of World Order, Past and Present" in John King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276.

운명을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국제정치학적 사유의 자율성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국인의 사유를 지배하는 미국적 국제정치학 그 자체를 자각적으로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120] 그러려면 먼저 근대 국제정치이론을 국제정치학의 표준적 이론의 지위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국제정치학 강의실에서 근대 국제정치이론을 표준적인 이론으로 소개하는 강의도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대신 근대 국제정치이론은 낡은 근대 세계관을 근본전제로 수용해서 구성된 낡은 이론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이론으로는 국제정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 뿐 아니라 그런 이론은 작금의 인류를 끊임없이 '파멸의 위기'로 강제하는 궁극적 원천이라는 것,[121] 따라서 근대 세계관을 근원적으로 대체한 새로운 세계관에 입각해서 국제정치이론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국제정치학이 당면한 과제라는 것 등등을 소개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준비하고, 그런 교과서를 활용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그런 방향의 연구는 이미 시작되었다. 먼저 화이트헤드가 직접 작성한 국제정치 관련 논문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122] 에롤 해리스의 경우 근대

120)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미국 정치 문명을 자각적으로 상대화시킨 선구적 연구로는, 권용립, 『미국-보수적 정치 문명의 사상과 역사』(역사비평사, 1991). 이 논문의 서평으로는, 이현휘, "미국 정치 문명의 자각적 상대화: 조건과 방법," 『담론201』 3:2 (2000), pp. 113-137.

121) 해리스, 『파멸의 묵시록』, pp. 104-105, 107-137.

122) 예컨대, Alfred N. Whitehead, "An Appeal to Sanity" & "The Importance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England and United State" in A. H. Johnson,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9), pp. 111-135, 136-143. 이 두 논문에 대한 해설로는, A. H. Johnson, "Interpretation of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in Johnson,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pp. 29-35. A. H. Johnson, Whitehead's Philosophy of

세계관의 기계론적 자연관에 입각해서 구성된 국제정치학을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대안의 국제정치학을 제시했다.[123] 또한 근대 세계관을 대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들뢰즈의 철학에 입각해서 국제정치이론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도 속출한다.[124] 한국 국제정치학의 미래 역시 그런 방향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125] 화이트헤드가 1925년 로웰 강좌에서 제시한 학문적 과제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미 종교, 과학, 정치사상 등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만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그런 시대가 상이한 극단 사이에서 단지 맹목적으로 방황하는 사태를 피하도록 만들려면 진리를 심층적으로 탐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진리의 심층을 탐구하려면 반드시 철학에 의존해야 한다. 철학이란 진리의 심층에 깔인 추상개념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기 때문이다.[126]

Civilizat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2), pp. 105-110.

123) Errol E. Harris, The Survival of Political Man: A Study i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Order (Johannesburg: Witwatersrand University Press, 1950). Errol E. Harris, Annihilation and Utopia: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Errol E. Harris, One World or None: Prescription for Survival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93).

124) 예컨대, "Special Issue on Deleuze and Guattari and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13:4 (2010). Tom Lundborg, "Encountering the 'Event' in International Politics: Gilles Deleuze, '9/11,' and the Politics of the Virtual," Ph. D. dissertation, Aberystwyth University (2008).

125) 필자는 화이트헤드와 해리스의 시각에서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이현휘, "『파멸의 묵시록과 한국 인문사회과학』, 해리스, 『파멸의 묵시록』, pp. 233-285.

126)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pp. 51-52.

참고문헌

권용립. 『미국-보수적 정치 문명의 사상과 역사』(역사비평사, 1991).

_____. 『미국의 정치문명』(삼인, 2003).

라투르, 브뤼노. 이세진 옮김.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사월의 책, 2012).

문창옥.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통나무, 1999).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계보와 역사,"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론, 2004), pp. 19-78.

박상섭·하영선. "미국 국제정치학의 추세와 한국 국제정치학의 상황," 『국제정치논총』 35:1 (1995), pp. 303-313.

베일리스, 존·스미스, 스티브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을유문화사, 2003).

신욱희. "구성주의 이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pp. 457-483.

양준희.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41:3 (2001), pp. 25-46.

월츠, 케네스. 박건영 옮김. 『국제정치이론』(사회평론, 2000).

유진석·박건영. "국제정치 연구의 한국적 현실과 대안을 위한 방향 모색," 『아태연구』 15:1(2008), pp. 57-71.

이현휘. "문명으로서의 미국 읽기," 『당대비평』 21 (2003 봄), pp. 424-434.

_____. "미국 대외정책의 관습과 21세기 미중관계의 전망," 『미국사연구』 29(2009), pp. 157-198.

_____. "미국 정치 문명의 자각적 상대화: 조건과 방법," 『담론201』 3:2 (2000), pp. 113-137.

_____. "미국 혁명의 종교적 기원 (I): 화이트헤드와 탈근대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 『화이트헤드연구』 11(2005), pp. 9-40.

_____.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연다: 친미와 반미 논쟁의 철학적 해체," 『미국사연구』 25 (2007), pp. 1-30.

_____. "소명으로서의 전쟁: 미국 대외정책 정신과 신의 눈물," 『현대사회와 정치평론』 창간호 (2007), pp. 7-59.

_____. "『파멸의 묵시록과 한국 인문사회과학』, 해리스, 『파멸의 묵시록』, pp.

233-285.
_____.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의 허상과 실상,” 『정치와 평론』, 제6집(2010), pp. 55-96.
_____. “화이트헤드와 근대 세계관의 철학적 성찰,” 『화이트헤드연구』, 제21집(2000), pp. 123-164.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하영선·김영호·김명섭 공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p. 431-463.
_____.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50:2 (2010), pp. 35-64.
조지형.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출판, 2002), pp. 200-262.
_____.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호학적 역사학: 화쟁 기호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65 (2000), pp. 147-155.
_____. “포스트모던 역사이론과 ‘열린’ 역사학,” 『역사학보』 167 (2000), pp. 447-507.
_____. 『랑케 & 카: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김영사, 2006).
차성환. “독일 사회과학의 오리엔탈리즘: 막스 베버를 중심으로,” 『담론201』 7:1 (2004), 273-302.
텐부룩, 프리드리히. 차성환 편역.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문학과 지성사, 1990).
해리스, 에롤 E. 이현휘 옮김. 『파멸의 묵시록: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산지니, 2009).
헌트, 마이클. “한국 독자들에게,” 헌트,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 pp. 9-18.
_____. 권용립·이현휘 옮김,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산지니, 2007).

마이클 헌트와 인터뷰 (2008. 6. 3.)
이자벨 스땅제와 인터뷰 (2008. 4. 25.)

Agevall, Ola. “A Science of Unique Events: Max Weber’s Methodology of the Cultural Science,” Ph. D. dissertation, Uppsala University (1999), chap. 7, “The Theory of Adequate Causation.”
Allen, Barry. “Turning Back the Linguistic Turn in the Theory of Knowledge,” Thesis Eleven 89 (May 2007), pp. 6-22.

Arlandson, James. “The Origins of Postmodernism” American Thinker (March 31, 2007).

Barkin, J. Samuel. “Realist Constructivis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2003), pp. 325-342.

Bostaph, Samuel Harvey. “Epistemological Foundations of Methodological Conflict in Economics: The Case of the Nineteenth Century Methodenstreit,”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76).

. “The Methodological Debate Between Carl Menger and the German Historicists,” Atlantic Economic Journal, 6:3 (1978), pp. 3-16.

Burtt, E. A. The Metaphysical Foundations of Modern Sci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24).

Buss, Andreas. “The Concept of Adequate Causation and Max Weber’s Comparative Sociology of Relig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0:2 (1999), pp. 317-329.

Campbell, Davivd.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Catlin, George E. G.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in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pp. xi-xxxvi.

Corish, Denis. “Postmodernism as Modernism,” The Harvard Review of Philosophy 2:1(1992), pp. 17-19.

Devetak, Richard. “Postmodernism,” in Scott Burchill and Abdrew Linklater et al.,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pp. 181-208.

Dombrowski, Daniel. “Rorty versus Hartshorne, or, Poetry versus Metaphysics,” Metaphilosophy 38:1 (January 2007), pp. 88-110.

Dunne, Tim. Hansen, Lene. Wight, Colin. “The E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2013), pp. 405-425.

Durkheim, Emile.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trans. by Sarah A. Solovay and John H. Mueller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Ford, Marcus Peter. William James’s Philosophy: A New Perspective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2).

“Forum on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 (2000).

Fraser, Miriam. “The Ethics of Reality and Virtual Realty: Latour, Facts and Value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9:2 (2006), pp. 45-72.

Gaddis, John Lew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7:3 (1992/1993), pp. 5-58.

Gaitán, Leandro Martin. “WJ & Whitehead’s ‘Philosophy of the Organism,’” Streams of William James 2:3 (2000), pp. 8-9.

George, Jim. Discourse of Global Politics: A Critical (Re)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1994).

Guzzini, Stefano and Leander, Anna.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lexander Wendt and his critics (London: Routledge, 2006).

Halewood, Michael. “Subjectivity and Matter in the Work of A. N. Whitehead and Gilles Deleuze: Developing a Non-essentialist Ontology for Social Theor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2003).

Harris, Errol E. Annihilation and Utopia: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_____. One World or None: Prescription for Survival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93).

_____. The Restitution of Metaphysics (New York: Humanity Books, 2000).

_____. The Survival of Political Man: A Study i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Order (Johannesburg: Witwatersrand University Press, 1950).

Heidelberger, Michael. “From Mill via von Kries to Max Weber: Causality,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in Uljana Feest, ed., Historical Perspectives on Erklären and Verstehen (New York: Springer, 2010), pp. 241-265.

Hixson, Walter L. “Appendix A: Discourse and Disciplinary Knowledge,” in Hixson,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pp. 309-312.

_____. “Appendix D: Identity and Lacanian Psychoanalytic Theory” in Hixson,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pp. 317-318.

_____.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National Identity and U.S. Foreign Poli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Hoffmann, Stanley.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106:3 (1977), pp. 41-60.

Holsti, K. J. The Dividing Disciple: Hegemony and Diversity in International Theory (Boston: Allen & Unwin, 1985).

Hopf, Ted. “The Logic of Habit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6:4 (2010), pp. 539-561.

_____.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3:1(Summer, 1998), pp. 171-200.

_____. Reconstructing the Cold War: The Early Years, 1945-195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Hosinski, Thomas E. Stubborn Fact and Creative Advance: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of Alfred North Whitehead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1993).

Hunt, Michael H. "Ideology" (revised and extended version of a 1991 article), in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ed. Michael J. Hogan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221-240.

Jackson, Patrick Thaddeus and Nexon, Daniel H. "I Can Has IR Theory?" The Duck of Minerva Working Paper, 1. 2013 (8 January 2012).

Jackson, Patrick Thaddeus. "The Forum: Bringing the Gap: Toward A Realist-Constructivist Dialogu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 (2004), 337-352.

Jackson, Robert and Sørensen, Georg.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James, William. Habit (New York: Henry Holt and Co., 1914).

Johnson, A. H. "Interpretation of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in Johnson,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pp. 29-35.

_____.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9).

_____. Whitehead's Philosophy of Civilizat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2), pp. 105-110.

_____. Whitehead's Theory of Reality (Boston: The Beacon Press, 1952).

Keeley, James F. "To the Pacific? Alexander Wendt as Explore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5:2 (2007), pp. 417-430.

Kim, Kyung-Man. "Max Weber's Axiological Critique of the Methodology of the Human Sciences: The Methodenstreit and Ideal Typ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4 (2008), pp. 99-111.

Klein, Bradley S. Strategic Discourse and Its Alternatives. Center on Violence and Human Survival Occasional Paper 3. (New York: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1987).

Kurth, James. “Inside the Cave: The Banality of I.R. Studies,” The National Interest 53 (1998), pp. 29-40.

Lake, David A. “Why ‘isms’ Are Evil: Theory, Epistemology, and Academic Sects as Impediments to Understanding and Progres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5 (2011), pp. 465-480.

_____. A. “Theory is Dead, Long Live Theory: The End of the Great Debates and the Rise of Eclectic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 (2013), pp. 567-587.

Latour, Bruno. “What is Given in Experience,” boundary 2 32:1(2005), pp. 222-237.

_____.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by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_____. “Postmodernism? No, Simply Amodern! Steps Towards an Anthropology of Science,”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21:1 (1990), pp. 145-171.

Lebow, Richard Ned. “Constructive Realism,”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 (2004), 346-348.

Leclerc, Ivor. Whitehead‘s Metaphysics: An Introductory Exposi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8).

Leyden, W. von. Seventeenth-Century Metaphysics: An Examination of Some Main Concepts and Theories (New York: Barnes & Noble, 1968).

Lowe, Victor. “William James and Whitehead’s Doctrine of Prehens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38:5 (1941), pp. 113-126.

Lundborg, Tom. “Encountering the ‘Event’ in International Politics: Gilles Deleuze, ‘9/11,’ and the Politics of the Virtual,” Ph. D. dissertation, Aberystwyth University (2008).

Mason, David R. “Whitehead’s Analysis of Perception as a Basis of Conceiving Time and Value,” Zygon 10:4 (1975), pp. 398-418.

Navon, Emmanuel. “The ‘Third Debate’ Revisite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4 (2001), pp. 611-625.

Parusnikova, Zuzana. “Against the Spirit of Foundations: Postmodernism and David Hume,” Hume Studies XIX:1 (April, 1993), pp. 1-18.

Penfold, Michael J. “Postmodernism,” http://www.webtruth.org/articles/ultural-

ssues-26/postmodernism-35.html

Reus-Smit, Christian. “Beyond Meta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 (2013), pp. 589-608.

Rorty, Richard M. “The Subjectivist Principle and the Linguistic Turn,” in George L. Kleine, ed., Alfred North Whitehead: Essays on His Philosoph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pp. 134-157.

Rudolph, Katherine. “The Linguistic Turn Revisited: On Time and Language,”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17:2 (2006), pp. 64-95.

Schmidt, Brian C. “On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A. Simmons,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s Angeles: Sage, 2013), pp. 3-22.

Schwartz, Benjamin I. “The Chinese Perception of World Order, Past and Present” in John King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276.

Shapiro, Ian. The Flight from Reality in the Human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Shapiro, Michael, J. “Textualizing Global Politics,” in James Der Derian and Michael J. Shapiro, eds., International/ Intertextual Relations: Postmodern Readings of World Politic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9), pp. 11-22.

Sinclair, Scott. “William James as American Plato?” William James Studies, 4 (2009), pp. 111-129.

Skorupski, John. “The Post-Modern Hume: Ernest Geller’s ‘Enlightenment Fundamentalism,’” in Skorupski, Ethical Explor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255-286.

Smith, Steve.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ill an American Social Sci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3 (2000), pp. 374-402.

“Special Issue on Deleuze and Guattari and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13:4 (2010).

Stengers, Isabelle. “A Constructivist Reading of Process and Reality,” Theory, Culture & Society 25:4 (2008), pp. 91-110.

. “An Ecology of Practices,” Cultural Studies Review 11:1 (2005), pp. 183-196.

_____. “Experimenting with Refrains: Subjectivity and the Challenge of Escaping Modern Dualism,” Subjectivity 22 (2008), pp. 38-59.

Sterling-Folker, Jennifer. “Realist-Constructivism and Moralit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 (2004), pp. 341-343.

Stewart, Dwight C. ed., “Whitehead’s Harvard Lectures, 1926-27, Compiled by George Bosworth Burch,” Process Studies 4:3 (1974), pp. 199-206.

Tekiner, Deniz. “German Idealist Foundations of Durkheim’s Sociology and Teleology of Knowledge,” Theory & Science (2002). http://theoryandscience. caap.org/content/vol003.001/tekiner. html

Tingley, Wm. “An Exchange on Hume, Postmodernism, and Lost Knowledge,” Vulcan’s Mercy: History Matters (October 11, 2007). http://localareawatch. typepad.com/vulcans_mercy/2007/10/an- exchange-on-.html

Tjalve, Vibeke Schou. “Hans J. Morgenthau: The Realist Polity between Purpose and Dissent” in Tjalve, Realist Strategies of Republican Peace: Niebuhr, Morgenthau, and the Politics of Patriotic Diss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p. 97-133.

Toews, John E. “Intellectual History after the Linguistic Turn: The Autonomy of Meaning and the Irreducibility of Experienc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2:4 (Oct., 1987), pp. 879-907.

Walt, Stephen, M. “Is IR Still ‘an American Social Science?’” Foreign Policy (June 6, 2011).

Waltz, Kenneth N.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 171 (1981).

Weber, Max. “Basic Sociological Terms” in Weber, Economy and Sociolog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trans.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p. 4-22.

_____. “Critical Studies in the Logic of the Cultural Sciences” in Weber, Max Weber: Collected Methodological Writings, ed. by Hans Henrik Bruun and Sam Whimster, trans. by Hans Henrik Bruun (London: Routlege, 2012), pp. 169-184.

Weber, Michael. “Whitehead’s Reading of James and Its Context, Part One,” Streams of William James, 4:1 (2002), pp. 18-22.

_____. “Whitehead’s Reading of James and Its Context, Part Two,” Streams of

William James, 5:3 (2003), pp. 26-31.
Wendt, Alexander.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June 1994), pp. 384-396.
_____. “On the Via Media,”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 (2000), pp. 165-180.
_____. “Quantum Mind and Social Science,” http://www.quantum consciousness. org/views/QuantumMindAndSocialScience.html
_____.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An Auto-critique from a Quantum Perspective,” in Guzzini and Leander,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p. 181-240.
_____.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Whitehead, Alfred N.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5).
_____.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_____. Dialogues of Alfred North Whitehead, As Recorded by Lucien Pric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6).
_____. Modes of Thought (London: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8).
_____.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_____.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0).
_____.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G. P. Putnam‘s Sons, 1959).
_____. The Function of Reason (Boston: beacon Press, 1958).
_____. “An Appeal to Sanity” in A. H. Johnson,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pp. 111-135.
_____. “The Importance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England and United State” in A. H. Johnson,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pp. 136-143.
Williams, Michael C. “Hans Morgenthau and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Realism” in Williams, The Realist Tradition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82-127.
. “Why Ideas Matt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ns Morgenthau, Classical Realism, and the Mor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 (2004), pp. 633-665.
Wilson, Fred. "Hume and Derrida on Language and Meaning," Hume Studies XII:2 (November, 1986), pp. 99-121.
Zehfus, Maja,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olitics of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Abstract]

The Subjectivist Principle and the Collapse of IR as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 the Case of Constructivism and Postmodernism

Yi, Hyun-hwee (Kyung-hee Univ.)

IR as an American Social Science has collapsed. It is because the modern world view that grounded the fundamental assumptions of IR has eclipsed into a complete distrust by the effect of the second scientific revolution of the 20th century. A metaphysical reflection on IR has not been performed throughly, though. That is why the intellectual lag of IR has persisted stubbornly in the IR texts and in the IR lectures of Universities today. In this article, I will show vividly that the fundamental assumptions of both Constructivist and of Postmodern IR theories are founded upon "the subjectivist principle" that Whitehead regarded as one part of the modern world view. As an alternative of the subjectivist principle, Whitehead put forward the reformed subjective principle. And

he suggested Burke's conception of "prejudice" as its good realization.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collapse of IR, therefore, a new IR theory on the basis of Burke's prejudice should be devised.

Key-Words: the end of IR theory, metaphysical reflection, the subjectivist principle, constructivism, postmodernism.

접 수 일 : 2014년 5월 2일
심사기간 : 2014년 5월 11일 ~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5월 18일